

■ 센터 소장 인사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선선함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은 더 깊어지고 구름은 더 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 진료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코로나의 일상을 버티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북한 땅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옆친데 뒤편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경 폐쇄라는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함으로 북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COVAX의 코로나 백신 제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발표하게 된 북한 내부의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수용해야 할 백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북한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올해 연세의료원 통일의 밤 행사는 11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연세의료원 교직원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브란스와 통일 그리고 나에게 통일이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 주제로 제작한 동영상 경연대회를 합니다. 팀 또는 개인 별로 제출한 동영상을 심사해 시상합니다. 행사를 통해 나에게 통일이란?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경청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센터 소장 인사말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등 5개 전공별 기획단 활동을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 뉴스레터에는 통일보건의료센터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수행된 H2 프로그램 소개, 49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요약, 신간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 2판 소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복원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협력 분야에서 연세의료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건강공동체를 위해 연세의료원의 기관 사명을 갖고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활동해 가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7.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박용범 올림

2년 연속 수행된 H2(Help for the Helper)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편집자 주]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기획한,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대응 프로그램(H2 : Help for the Helper)'(이하 H2 프로그램)이 2년 연속으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COVID-19를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 본다.

온라인을 통한 H2 프로그램 진행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들의 역량 강화 및 소진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9년 프로그램이 대면하여 제주도, 강릉 워크샵 등을 통한 소진 대응에 비중을 두었다면, 2020년 프로그램은 온라인(on-line)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강좌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

교육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후원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개월간 남한 출신 10명, 북한 출신 1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 20명 모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모두 수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교육은 총 8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1강 마음챙김, 2강 자기이해, 3강 스트레스 관리, 4강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소진 대응, 5강 트라우마 이해와 대처, 6강 우울, 수면, 자살, 중독, 7강 몸챙김, 8강 상담기법으로 구성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자들의 소진 대응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는 9개월 간 참가자들에게 바디스캔, 운동, 근육이완을 매일 수행하는 과제가 요구되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지만 H2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대면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H2 프로그램 돌아보기 : 적극적 참여, 실제적인 도움, 남북 출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2020년 H2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한 출신 10명 및 북한 출신 10명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H2 프로그램은 매 회차 강의 시간 이후에 충분한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궁금한 사안을 묻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며 강좌를 알차게 채워나갔다.

2년 연속 수행된 H2(Help for the Helper)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한편, 7강 몸챙김에서는 연세의료원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초빙하여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탈북민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근육 이완 방법, 통증 완화 방법에 대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강 의사소통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남한 출신 및 북한 출신 실무자가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더욱 알 수 있었고, 북한 출신 실무자들도 남한 출신 실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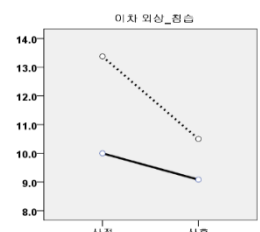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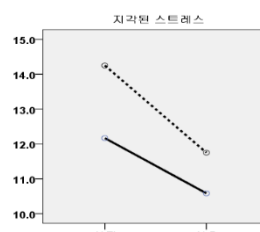


H2 프로그램의 성과 : 교육을 통한 자기인식 및 성공적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 돌봄 노력

교육참가자들의 H2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 자기 인식에 있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강도가 증진되었음' 등이 보고되었다. 직무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탈북민의 트라우마 이해' 등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 프로그램 전후 실시 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감소되었고, 문제해결적 대처는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침습, 과각성의 각 증상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영역과 관련해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기 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소진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운동, 바디스캔, 근육이완 등을 꾸준히 수행하고자 하는 발전적 결과를 가져왔다.



2년 연속 수행된 H2(Help for the Helper)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H2 프로그램의 의의 : 사회통합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협력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국가, 공동체, 개인의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 각기 다른 영역의 실무자들이 자신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면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전문지원자들과 협력적 관점에서 정착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한과 북한 출신 실무자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상호 협력은 향후 북한 주민과의 교류나 남한 내 남한 주민이 탈북자들을 만날 때 겪을 수 있는 오해, 편견, 고정관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 49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지속발전 목표를 통해 본 북한의 식량, 영양, 보건 현황”

□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후 6시

□ 장소 : Webex (웹엑스)

강사 소개 문경연 교수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주요경력: 현)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부학장
현)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회의 민간위원
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전)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사무국장, 국제위원장

제49차 세미나에서는 대북지원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 프레임워크 도전과 과제: SDG 1(빈곤퇴치), 2(기아종식), 3번(건강과 복지) 목표 상의 주요 북한 지표 현황, 북한의 VNR(자발적인 국가 검토)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4가지 우선순위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에 초점

북한 SDGs: 유엔전략계획 2017-2021를 살펴보면, 북한은 4가지 우선 순위를 1) 식량 및 영양안보, 2) 사회개발 서비스,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4) 데이터와 개발관리 순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업 관리 및 평가에 있어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적용, 인권중심 접근법 채택,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지원,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특징은 인도적지원보다는 개발지원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지식 협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보고서 발간은 북한의 SDGs 이행 의지의 확인

SDG 1(빈곤퇴치), 2(기아종식), 3번(건강과 복지) 지표를 토대로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표의 우선순위들이 변경되고, 보고되지 않았던 지표들이 보고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보고 중 2021년 7월에는 북한이 자발적 국가 리뷰(VNR)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SDGs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SDGs 이행 노력은 국제사회 흐름 속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정부는 UNESCAP 동북아사무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동북아사무소는 북한의 SDGs 이행 리포팅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2판 (대표편저자 전우택, 김신곤. 박영사. 2021.)

21세기 한반도의 가장 큰 화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상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6.25 전쟁 경험과 극단적 대립에 의한 집단 트라우마와 상호 증오는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막아서고 있다.

이 어려운 교착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선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통한 남북 상호교류 및 공동 대처 협력이 이야기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여전히 매우 이질적이고 불편한 대상이지만 할지라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성찰과 구체적 준비를 하는 것이 시대에 대한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반도가 하나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이라고 보고,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적 준비의 시각으로 기술되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국경 없이 창궐하는 COVID-19 사건을 겪으며 건강에는 분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된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단절된 보건의료정책은 단기적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고립시키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 한반도의 남과 북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2018년 초판을 개정한 한반도건강공동체 준비 2판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통일보건의료학회를 통하여 진행되어 온 이에 대한 성찰과 준비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출간되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초대이사장인 전우택 교수 (연세의대)와 현 이사장인 김신곤 교수(고려의대)가 대표편저자가 되어 만들어진 이 책은 2018년 8월에 1판이 나온 이후, 3년 만에 여러 많은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어 2판으로 나왔다.

총 37명의 저자들이 함께 한 이 책은 통일보건의료 관련 국내 유일하면서도 가장 체계적인 내용의 교과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 및 대학원에서의 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2판 (대표편저자 전우택, 김신곤. 박영사. 2021.)

이번 2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총론에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의 개념, 독일 사례 분석,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보장과 재정, 북한을 바라보는 이해의 틀, 한반도 평화와 건강공동체 등이 다루어졌다. 2부 주요 질환 관련 준비에서는 모자보건, 감염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정신질환이 다루어졌다. 3부 전문 영역별 준비에서는 치의학, 간호학, 약학, 한의학(고려의학), 영양학, 대체보완의학 영역이 다루어졌다. 4부 주요 이슈별 준비에서는 국제사회의 역할, 교류협력 준비, 법제도 준비, 리더십 준비,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이 다루어졌다. 5부 한반도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준비에서는 건강증진행동, 남북한 문화적 차이 적응 방안, 북한이탈주민 진료를 위한 지침, 향후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위한 제안 등이 다루어졌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2판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통합적 시각 및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혜안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북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책임자	염준섭 의과대학 교수 (감염내과) 이혜원 객원교수 (인문사회이학교실)
발주기관	통일부
기간	2021. 7. 5. ~ 2021. 11.30 (5개월)

연구과제명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책임자	전우택 의과대학 교수 (의학교육학교실/인문사회이학교실)
발주기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기간	2021. 9. 1. ~ 2022. 2.28 (6개월)

■ 기타·광고

2021 9월 통일보건의료세미나(예정)

일자	차수	강연자	주제	장소
9.28(화)	50차	안명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슬기로운 남북보건의료협력	웹엑스 (Webex)

